

싸목싸목 남도한바퀴 >>> 진도 볼거리

# 강강술래·씻김굿·세방낙조...문화예술 맛보고 힐링은 덤



진도개를 본뜬 '도깨빵'과 올금 라떼



〈진도군 제공〉 세방낙조.

진도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3종과 국가 무형문화재 5종, 도지정 무형문화재 6종, 향토 무형문화유산 8종 등을 보유한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특구'이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강술래' 공개 발표회.

420여 년 전 조선의 명운(命雲)을 건 해진이 벌여줬던 울돌목은 건너 진도 땅에 들어선다. 진도 들머리에 우뚝 선 높이 60m의 '진도타워' (지하 1층·지상 7층)에 오르면 과거 격전의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타워 앞 광장에는 대청 당시의 조선 수군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머지않아 해남-진도 사이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될 계획이다.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타워를 잇는 길이 918m의 케이블카이다. 개통목표는 2021년이다.

'보배로운 섬' 진도(珍島)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조도와 가사도, 거차도 등 230여개의 유·무인도로 이뤄져 있다.

진도 진산(鎭山)인 첨찰산 아래 자리 잡은 운림산방(雲林山房)은 진도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명소다. 소치(小痴) 허련(1808-1892)이 이곳에 화실 겸 거처를 지은 때는 40대 후반. 1856년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에 돌아와 화실을 지었다. 추사는 그의 작품을 보고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고 극찬했다. 산방 이름은 아침과 저녁에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같다는데서 유래했다. 산방 앞 연못에 반영되는 풍광이 한폭의 그림 같아서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들머리 우뚝선 60m 진도타워  
과거 울돌목 격전지 한눈에  
소치 허련 거처 첨찰산 운림산방  
진도여행 빼놓을 수 없는 대표 명소

우리나라 최초 민속문화특구  
수요일·주말 전통민속문화 '만끽'

진돗개·올금·구기자 상품 개발  
빵·라떼 만들어 관광객에 인기

연말이면 꼭 가고싶은 세방낙조 전망대  
붉은 바다로 빨려들어가는 낙조 일품

◇매주 수요일 펼쳐지는 문화예술의 '진수성찬' = "진도는 원형(原型)의 섬이다. 음악과 놀이와 그림과 무속의 원형이 이 섬에서 비롯되었고 거기서 완성되었다. 이 원형들은 굳어져버린 틀이 아니라, 삶과 함께 출렁거리는, 열려진 표현양식이다..."

소설가 김훈은 '자전적 여행'에 실린 '원형의 섬-진도 소포리'에서 진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진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민속문화특구'다. 그래서 누구나 진도에 오면 강강술래와 북놀이, 씻김굿, 다시래기와 같은 진도만의 민속문화를 맛보아야 한다. 진도에서는 수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다양한 진도 전통 민속문화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진도읍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열리는 수요일 상설공연 '진수성찬'은 진도군 보유 무형문화재보존회에서 잘 차려 내놓는 진도 문화예술의 정찬(盛饌)이다.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수요일 공연은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에 맞춰 여름휴가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씻김굿과 다시래기, 강강술래, 진도북놀이, 들노래, 옛타령 등 다채롭다.

또한 금요일에는 국립 남도 국악원이, 토요일에는 진도 군립 민속예술단이, 일요일에는 진도 민속문화 예술단이 각각 다채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린

다. 진도 토요일민속여행은 1997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23년째 850회 가까운 공연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배섬' 진도의 전통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회 기간동안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10월 20일) ▲제1회 진도북놀이 페스티벌(10월 26-27일) ▲제22회 대한민국남도 민요 경창대회(11월 2-3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진돗개와 올금, 구기자로 진도만의 상품 만들어 = "장인-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진도에 생애 처음으로 왔을 때 친구들에게 '나 진도 갔다왔어!' 하고 보여줄만한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카페 '도깨' 이승호 대표는 진돗개를 닮은 빵(만쥬)을 개발했다. 오후 시작해 밤 2시까지 꼬박 8시간 동안 하나하나 손으로 일일이 120개를 빚어 오븐에 굽는다. 그리고 이른날 오전에 화룡점정(畫龍點睛) 같은 눈·코·입을 그려 넣는다. 무표정이나 놀라는 표정, 웃는 표정 등 5개 표정이다.

'도깨'라는 상호는 진돗개의 뺨를 도깨로 발음한 것으로, 특히 정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진도가 고향인 와이프와 결혼한 후 진도로 내려와, 2017년 5월 읍내에 카페를 열었다. 초창기에는 식빵위주로

빵을 만들었고, 2018년 1월에 '도깨' 빵상품을 처음 내놓았다. 강낭콩을 갈아 흰팥앙금을 채운 것과 유자맛, 복숭아맛, 흑미맛 3가지 맛이 있다. 유자와 흑미는 진도산을 사용한다. (진도읍 서문길 1·061-544-0006)

올금과 구기자는 진도 특산물중 하나다. 카페 '앤드' (AND) 이진섭 대표는 올금과 구기자를 이용한 라떼를 선보였다.

구기자 라떼를 만들려면 구기자를 낮은 온도에서 12시간동안 푹 끓여 진하게 우려내야 해야 한다.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우유와 섞는데 온도가 중요하다.

올금과 구기자는 몸에 좋아 차로 많이 먹는다. 올금 라떼는 올금 특유의 쓴맛이 나중 올라오는데 '뒷맛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진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몸에 좋은 두 라떼를 마시기 위해 일부러 카페를 찾아온다. (진도읍 철마길 6-5)

연말이면 꼭 가고싶은 곳이 세방낙조 전망대이다. 지산면 가치리와 가학리 801번 해안도로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섬과 섬사이 붉은 바다로 빨려들어가는 듯하다. 빼어난 자연풍광과 민속문화를 즐기다보면 어느새 여행자의 마음 역시 절로 '힐링' 되는 느낌이 든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